



1일 명예 검역원장
“양돈협 · 검역원 유기적 관계 구축을”

– 양돈협 김동환 회장, 1일 명예 검역원장 직무수행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이 지난 7월 12일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서 1일 명예 검역원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이날 김동환 회장은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부터 1일 명예 검역원장 위촉장을 수여받고, 축산물안전과, 방역과, 독성화학과, 바이러스과, 세균과, 정밀진단과 등 검역원을 순회하면서 담당과장 등을 만나 검역원의 역할 및 현재 업무 진행사항,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한 각 과별로 양돈산업에서 필요한 연구과제 등을 제안하며 양돈협회와 검

역원이 서로 협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협의했다.

1일 명예 검역원장의 역할을 수행한 김 회장은 “오늘 경험을 통해 평소 몰랐던 검역원의 기능을 알게 됐다”며 “향후 양돈협회와 검역원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 양돈산업 전체 발전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양돈업계가 겪고 있는 소모성질환 및 돼지열병 등 질병근절을 위해 검역원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강문일 검역원장은 검역원이 양돈농가가 원하는 서비스 및 업무를 수행하고자 체계적인 조직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협회와 업무 협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밝히는 한편, 특히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가축위생시험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양돈**